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모든 것 '공' 하기에 먼지 앓을 자리 없어

안되는 것도 법이라고 하는 건 앞에 구덩이가 있어 빠질 일은 물러서야 빠지지 않기때문이지

여러 분은 아래 앉아 계시고, 제가 법상 위에 올라 앉은 것은, 내가 높고 여러분이 낮아서 이렇게 앉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의 모습을 쳐다보는 반면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높아서 이 법상에 올라 앉은 게 아닙니다.

인간과 더불어 부처님과 중생들은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이 평등한 데도 불구하고 마치 생각지 못한 분들은 어휴, 법상에 높이 앉았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을 모두 듣기 위해서 일 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내려 앉음과 올라 앉음이 틀어 아니고 평등하며, 일체가 다 트였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계·정·혜 삼학을 본다면,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라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전체입니다. 5계니, 10계니, 250계니, 280계니 하고 논하는 그 문제들도 전부 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그것을 문란치 않게 하여야 하니 가 말합니다. 그러기에 한두 가지 계율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을 해나가면서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에, 누가 되지 않은 일은 하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며, 거짓말을 한다 해도 남을 이익되게 한다면 거짓말이 아닐 수가 있으니, 그것도 또한 계율에 속합니다. 배고 낚 줄을 모른다면 목석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계는 정에 들어 있다. 즉 정심에 들어 있다 이겁니다.

계는 정심에 들어 있고 정심에 들어 있어, 바로 계·정·혜입니다. 우리가 그 정심으로 인하고, 한자리로 인해서 일체 만법이 들고 나는 이 도리를 정심에서 밝혀야만이 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탈이란 것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이름에서마저도 벗어나야 해탈지경한다 이겁니다.

달은 이 마음의 암흑 속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비춰주는 달과 같은 밝은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해는 일체 만중생을 따뜻하게 키워주고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속해 있느냐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따뜻한 마음의 밝은 지혜로써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부드럽게 하며, 생각 생각이 지혜롭게 서로 융합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해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면 남의 마음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의 마음이 따뜻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마음이 약하게 되면 그건 무간지옥이라 했습니다. 지옥이 어디 먼 곳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착하고 밝고 깨끗하게 정심으로써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일체 중생을 대하며, 가정을 이끌고, 풀이 아닌 도로로 대한다면,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상대도 밝아져 나와 더불어 밝게 불을 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나는 주인공을 찾는데도 이렇게 안됩니다" "주인공을 찾았더니 잘 되다가 또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한발짝 떼어 놓는 것만 알았지, 한발짝 또 놓고 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발짝 들었으면 한발짝 놓고 한발짝 들었으면 한발짝 놓고 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되는 것도 알아야 해요. 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걸 놓는 것도 알아야,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는 작용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가를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맡기니까 어느 정도는 되더니 다시 안되더라고 하는데, 무로 물러서는 것도 알아야지요. 앞에 구덩이가 있는데 전진하기만 하면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때는 물러서야 빠져 죽지 않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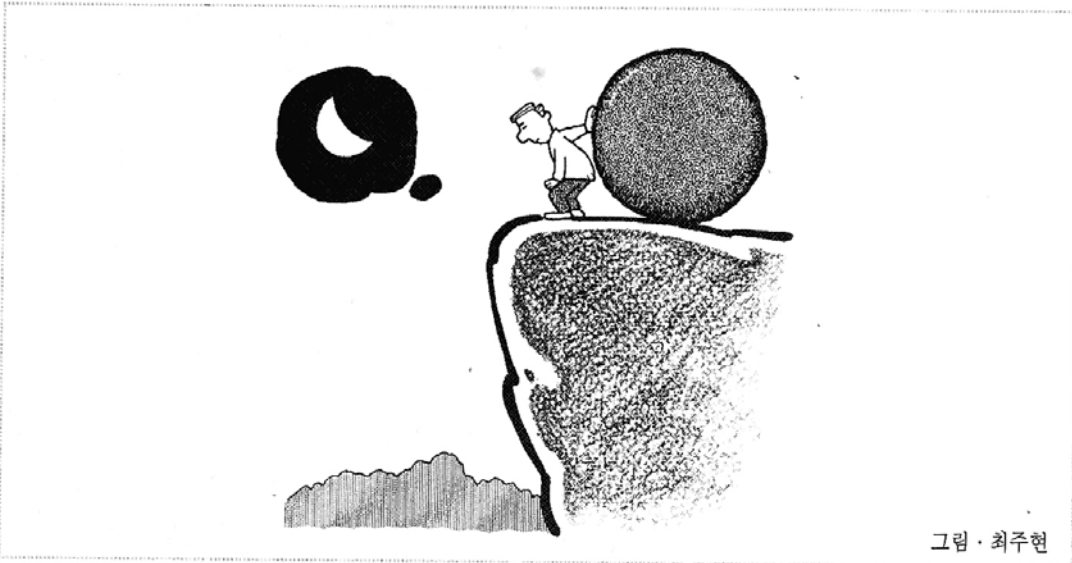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定心에 놓으면 망상·습성 다 걸러져요 내 마음이 따뜻해야 남도 따뜻해집니다

그러니 드는 것도 법, 들지 않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니라 한 것입니다.

왜 안되는 것도 법이라고 했느냐? 구덩이에 빠졌으니 빠질 일은 물러서야 한다 이 소립니다. 물러서서 다시 굴러 놓으면 빠지지 않는 데로 갈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안되는 것도 법, 되는 것도 법이라 했습니다.

양면 을 다 놓고 잘 굴릴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몸이 아파서만 아픈 게 아니라 천차만별 갖가지의 원인으로 아픔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가져오는 재료들은, 바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공부하는 길로 들어서는데 그냥 맨손으로 들어설 수가 없으니 그런 재료를 가지고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 재료가 아니면 이 길을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만하면 살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는 이길에 들어서려 하지 않

기 때문이지요.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넘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고 했습니까. 수없이 예길 하지만, 프로펠러 돌아가듯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거기에 먼지 앓을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지 앓을 새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병이 났다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생겼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걸 당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는 등 모두가 '내가'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말합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고 했지요. 여러분이 그건 짐작하십시오.

고정됨이 없이 보고, 듣고, 행하고, 말하고, 만나고, 먹고... 하나도 고정됨이 없이 말합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한시반시도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화하고 부서지며 돌아옵니다.

그러니 거기에 먼지 앓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료를 가져오는 걸

보면 모두 '내가, 내가,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돌아가는 길에 그런 것이 마음 작용에 따라서 부딪치는 것입니다.

업식으로 인해 인연에 따라서 나한테 지구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 속에서 용도에 따라 지구 나오는 그것을 업식이라 하고 업이라고 하며 유전이라고 하고 영계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든 경계를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로 인도 되기 위해서 공부할 재료가 생긴 것이다. 업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병고 붙어서 그런 게 아니며, 고맙고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끌어주는 재료가 주어진 것이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재료를 가지고 마음의 주인에게 맡겨놓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체험하면서 지켜보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그냥 들고 앉아서 '이 뭐고?'라고만 한다든가 강제로 의식을 내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선이 못됩니다. 하나하나 지켜보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일체 만법의 근원이며 그 근본을 해탈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말로만 그냥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이렇게 안됩니다" 하지 마세요.

주인공은 찾는 게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본래 없는 것을 찾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암흑 속에서 밝음이 불끈 솟아서 불이 일어나면 모두가 밝게 살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말로 이려고 저려고 하지 말고, 여길 가 봐야 옳을까 저길 가 봐야 옳을까 이리저리도 마시고, 내 중심에서 병원을 좀 갔다 와야 겠다고 마음이 일어나면 그대로 가는 것이 법이고, 병원에 안가도 마음 속의 모든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작용을 해주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거기에 놓고 실험을 하고 지켜보고 하는 것이 참 도리인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지요. 내 속에 들은 의식의 그 마음들이... 이 속에 들은 수십 억의 그 모습들이 다 여러분의 모습들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한 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주는 바탕에 여러분이 걸어나고 말도 하고 '나'라고 그러기도 하니가 맞습니다.

또 어떤 경계에 부딪쳐서 나를 보러 오더라도 나에게 말을 해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한마음인데 어찌 스님의 마음인들 이 속에 아니 계시랴'고 생각하십시오. 일체 만인의 마음, 일체 제물의 마음이 모두 한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파서 응해달라고 원한다면 약사보살로 응해주셔서 여러분의 몸

에 든 의식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이 돼서 고쳐주시고, 또 어떠한 애로가 있든지 수명이 짧다면 칠성이 되어서 응신으로 활나게 드셨다가 나시고, 죽어서 좋은 데로 가고자 지극하게 원하면 바로 지장이 돼서 여러분의 그 의식과 더불어 같이 한 데 합쳐서 지옥문을 열어 다 허물어 뜨리고 나가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묘한 마음의 슬기로운 그 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끌려가고 그런다면, 어떻게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며 어찌 암흑 속에서 벗어나서 태양을 보고 행하시겠습니까?

옛날이라고 할까요, 내일이라고 할까요, 오늘이라고 할까요?
어느 동자가 말합니다. 부처님과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부처님께서 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자야!"

"예"

"내 발과 네 발의 차이가 어떠하냐?"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점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95

수박은 씨에서 생겨났고 수박 속에는 씨가 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 보면 가장 잘 안다. 내가 가슴을 치며 아파 울면서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할 법가? 우리 살림살이가 모두 불법이니 살림살이에서 불법을 알아야지 '이 뭐고?'를 노래 하듯 원하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참 나와 이 운전하는 마음과 육신이 삼각으로 결합된 것이므로 나의 정체를 알려 하면 안으로 밝혀야 한다.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무모하게 남의 것이나 찾아다니고 남의 나무에 과일 익은 것이나 훔치다니면서 공부 가 된다 하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밖으로 세우거나 짓거나 보태서진 실이 성립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거짓된 것을 되돌려 내면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 진실이 넘실거리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밖으로 찾아서도 절대 안되고 밖으로 돌아서도 절대 안된다. 오로지 성품을 스스로 삼고 또 성품으로써의 만법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어 든 마음의 기동을 스스로 삼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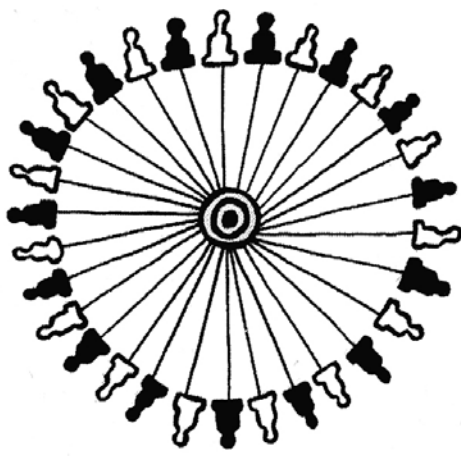
밖으로 찾는 것은 마치 허공 중에 방귀 쪼는 것과 같다. 밖으로 흩어져서 그 뿐이니 진실되게 내면으로 향해야 한다. 한마음 주인공을 찾는 것도 이름이 아니라 뜻으로 새겨야 하는데 사무치

마음으로 '당신만이, 당신밖에는 할 수 없다' 할 때 주인공은 임도 되고 부모 된다.

불성을 밖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찾이지 않는다. 그것은 열매 속의 씨와 같아서 마음 내기 이전의 과거 씨이자 현재의 씨요 미래의 씨이니 지식이나 확신으로 알아지지 않으며 절대로 밖에서 찾이지도 않는다. 밖으로 찾는다면 아무리 공덕도 이익도 없다.

공부를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안감힘을 써가며 부처님 모습을 언제나 보나, 부처님 말씀을 언제나 듣나 하며 지낸다. 그러나 실사 보고 들어도 그것은 관념 속의 상상일 뿐이다. 부처님을 찾는다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밖으로 찾는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다.년부터 깨닫고, 나 자신부터 밝히고, 나 자신부터 경배하고, 나 자신부터 잘 섬겨라.

수박 씨는 바로 수박 속에 들어 있다. 현재의 수박 속에 들어 있는 수박 씨는 과거의 씨이자 미래에 또 먹을 씨이다. 부처님께서 밝 한 그릇으로 유의 생명들과 무의 생명들을 다 먹고도 되남느니라 하셨듯이 불이 오면 수박 씨를 심어 내내 먹고, 내년에 또 심어서 먹고 그렇게 하기를 거듭하니 현재의 씨가 과거의 씨이자 미래의 씨인 것이다. 그



러므로 과거·현재·미래를 말할 것 없이 현재의 수박 안에 들어 있는 수박씨를 찾아야 한다.

수박은 씨에서 생겨났고 수박 속에는 씨가 있듯이 나는 과거로부터 왔으나 내 속에 미래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미래를 문제 삼을 게 없다. 지금 여기, 내 속에 모든 것이 살아있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세균에 꼬달리고, 유령에 꼬달리고, 유전성에 꼬달리고, 인과에 꼬달리고, 윤회에 꼬달리고, 생사에 꼬달리고, 그야말로 만방에 꼬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자성을 찾으라 하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봄을 찾아 산과 들로 헤매다가 끝내 찾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앞뜰에 복숭아 꽃이 만발해 있었다고 한다.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직 마음이다. 믿음도 마음, 삶도 마음, 죽음도 마음, 시간도 공간도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기 마음 안에서 찾을 일이다. 마음 안에다 예경하고 마음 안에다가 놓을 일이다.

심안이 열리지 않아 사물을 육안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한번 내면으로 굴러서 보게 되면 아무 뜻 없이 그

냥 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묘리가 있다.

형상으로 보이는 부처님과 내가 같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까지, 형상의 부처가 진짜 부처님으로 보이는 그때까지 일체가 자기로부터 비롯되었기에 내 탓으로 돌리는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밖으로 찾는다면 부처님의 글수는 커녕 살 한 점도 알아내지 못한다.

안으로 돌이키면 돌아가 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며 밖으로 뻗으면 번뇌를 키우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를 섬기지 말고 자성을 귀의하라"고 가르쳤음에도 중생들은 거룩하신 부처님앞에 엎드려 빌기를 계속한다.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겨서 자성보배를 믿지 못한 채 '신묘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억겁년을 수행해도 될 듯 말 듯하다'는 생각에 그냥 복이나 내려주시시오 하고 만다. 그러한 신앙은 대장부의 신앙이 아니다. 부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근본은 부처임을 믿어 당당한 주체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협찬: 지일상